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작성 예시 · 휴대폰용

가상 작성 예시 · 공식 제출 서식이 아닙니다. 아래 성명·금액·날짜는 모두 가상이며 실제 사건에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 문서는 차용증의 작성 항목을 보여주는 교육용 예시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한 약정을 정리합니다. 차용증 작성과 실제 송금은 서로 다른 사실이므로, 지급 약속을 적어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돈을 지급했다고 쓰지 마세요. 실제 지급 후 이체내역과 차주의 수령 확인을 대조합니다. 차용증만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 차용증

차용증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 김가은 (가상)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 이민호 (가상)

1. 차주 이민호는 대주 김가은으로부터 금 10,000,000원을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2. 대주는 2026년 9월 1일 차주 명의로 확인한 계좌에 위 돈을 이체하였고, 차주는 실제 입금액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문서와 별도로 양측은 송금내역을 보관합니다.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이 문장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3. 차주는 위 차용 원금 10,000,000원을 2027년 3월 1일까지 대주에게 갚기로 합니다. 상환 계좌와 방법은 당사자가 확인해 별도로 기록합니다.
4. 변제기 전 이자는 약정하지 않습니다. 이 예시는 변제기 후 지연손해금의 별도 비율도 정하지 않습니다. 연체 시 청구 가능한 범위는 실제 약정과 적용 법령에 따라 별도로 검토합니다.
5. 일부 금액을 갚는 경우 양측은 지급일·지급액·지급 방법과 남은 금액을 이체내역 및 별도 영수증·정산표로 확인합니다. 이 문구만으로 법령상 변제충당 순서를 임의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6. 이 예시에서는 보증인이나 부동산 담보를 정하지 않습니다. 담보가 필요하다면 소유자·기존 권리·담보할 채무 범위를 별도로 확인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등기 절차를 따로 검토합니다.

가상 작성일: 2026년 9월 1일

대주: 김가은 (실제 작성 시 본인 확인 뒤 자필 서명 또는 날인)

차주: 이민호 (실제 작성 시 본인 확인 뒤 자필 서명 또는 날인)

실제 문서에는 당사자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연락·송달 주소 등을 사안에 맞게 확인하되, 공개 양식이나 상담 댓글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계좌 비밀번호를 적지 마세요. 가상 서명란을 실제 서명으로 오인하지 마세요.

실제 작성할 때 대조할 자료

대주·차주가 실제 누구인지
따로 대조할 자료: 신분 및 명의 확인 자료, 대화 당사자

실제 지급일과 금액
따로 대조할 자료: 대주 출금·차주 입금 내역, 현금 거래라면 수령을 보여주는 별도 자료

반환기한과 이자 약정 유무
따로 대조할 자료: 문자·메신저의 합의, 변경 약정

일부 갚은 돈과 남은 금액
따로 대조할 자료: 입금내역, 영수증, 정산 대화

보증·담보 여부
따로 대조할 자료: 별도 약정과 담보 소유·등기 기록

작성일을 임의로 소급하거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을 이미 받은 것으로 표시하지 마세요. 서명 전에는 당사자별로 최종 문구와 실제 지급 상태를 대조하고 각자 동일한 서명본을 보관합니다. 작성·보관 방법은 사건에 맞게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와 관련 글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www.law.go.kr): 소비대차 약정의 기본 구조.
- 민법 제603조(반환시기) (www.law.go.kr): 약정한 반환시기.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www.law.go.kr): 변제기 후 손해배상 검토의 기본 규정.
- 이안법무사사무소: 차용증과 근저당권설정등기 (ianlaw.co.kr) 및 근저당권 설정 전 확인표 (ianlaw.co.kr): 담보가 필요할 때 별도로 확인할 내용.

법령·서식 확인 기준: 2026년 10월 4일. 이 예시는 개별 사건의 유효성·담보 순위·채권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안법무사사무소는 법무사 업무 범위에서 실제 자료를 확인해 차용증 문안 작성과 관련 등기서류 준비를 도울 수 있습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문안 작성·등기 등 수임 업무에는 별도 보수와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은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